



## "남자는 태어나서 세번 운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영아! 사나이가 울면 쓰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한다. 첫째는 태어날 때요. 둘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세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요" 이 세번을 제외하고 남자가 울면 안되는 거야" 아마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남자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겁니다.

남자는 왜 눈물을 참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일하게 눈물이란 소중한 씨앗을 함께 넣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온 문화적 세대의 주류는 남자가 우는 것 자체가 약함을 상징하고, 턱없이 부족한 못남으로 취급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울기는 왜 울어??"

잠시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이 울었던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02년 군입대시 부대안으로 들어가는 막내 아들을 끝까지 바라봐주셨던 어머니의 눈빛과 연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무 뒤에서 애써 눈물을 흘리며 바라봐 주었던 여자친구(오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유학길을 떠날 때 공항에서 작별의 아쉬움 앞에, 어머니가 써 주신 편지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돌아보면 기뻐서 울기도 했고, 아쉬워서 울기도 했고, 미안해서 울기도 했고, 답답해서 울기도 했고, 그리고 힘들어서 울기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보면 남자가 태어나서 3번 밖에 울지 않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통상 인생나이 40이 넘어가면 남자들도 몸의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남성미를 자랑하는 테스토스테론과 보소 프레신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들고, 반대로 여성 호르몬의 상징인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눈물이 없던 남자들도 이제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 거리며 "내가 왜 이러지?" 나에 대한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이! 아빠! 지금 울어요?" "아빠가 울기는 왜 울어. 안울어" 라고 말해야 아빠의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이 인정됐던 시대와 문화가 사실 '남자는 이 세상에서 3번만 우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 앞에 두고 흘린 예수님의 눈물을 누가는 다음이 같이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눅 19:41-42)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신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감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소위 남자들은 눈물에 인색하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울보라고 놀림받거나 사회 생활에서 나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사랑하는 딸을 기숙사에 보내주고 왔습니다. 물론 짧다면 짧은 거리일 수 있겠지만, 제 인생에 한 부분을 떼어내는 듯한 아쉬움과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 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말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창피하다는 생각보다는 흐르는 눈물로서 딸에 대한 아빠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암 전문의들이 말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감정들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채 쌓여있게 되면 몸을 해치는 독소와 같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많이 읊시다. 태어나서 세번만 울지 말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읊시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존심 다 버리고 읊시다. 슬퍼서, 아쉬워서, 미안해서 우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눈물 나도록 웃어서 우는 것도 좋습니다. 눈물은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항생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임무영 담임목사

#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담임목사: 임무영

Youth: Janice Kim

유초등부: Ahyuwani Akanet

(Teacher: Mike Brick)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세상을  
그리스도  
께로  
연결하는 교회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www.chicagobridgechurch.org



